

4월 9일 뉴스 종합 정리

2009년 4월 9일

리서치센터

02) 2009-7083

hsjeong@leading.co.kr

제목	주요 내용
뉴욕 사흘만에 반등	미국 주택건설업체 폴트 홈즈의 센텍스 인수 소식이 호재가 되었고, 미국 재무부가 일부 생명보험사에 부실자산구제계획(TARP) 자금 지원을 검토중이라는 소식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업틱 룰(uptick rule)` 재도입 시안 발표도 투자심리를 지지한데 힘입어 뉴욕 주식시장이 등락 끝에 사흘만에 반등에 성공했음. 그러나 주요 지수는 어닝시즌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종종 하락권으로 밀려나는 등 불안한 흐름을 보이기도 했으며,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가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을 통해 경기하강 리스크가 높다고 진단한 점도 부담이 되었음. 블루칩 중심의 다우 지수는 7,837.11로 전일대비 47.55포인트(0.61%) 상승했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도 1,590.66으로 29.05포인트(1.86%) 올랐으며, 대형주 중심의 S&P500 지수는 825.16으로 9.61포인트(1.18%) 전진했음.
M&A 주인공 `희비`.. 폴트 급락-센텍스 급등	인수합병(M&A)의 주인공 폴트 홈즈(PHM)는 10.5% 급락했음. 반면 센텍스(CTX)는 18.9% 뛰었음. 이날 폴트 홈즈는 센텍스를 13억달러에 인수하기로 했다고 밝혔고, 이로써 폴트 홈즈는 매출 기준으로 미국 최대 주택건설업체로 거듭났음. 양사의 합병은 1930년대 이후 최악의 주택시장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되며, 김미 크레디트의 비키 브라이언 애널리스트는 "쌓여가는 주택재고와 주택건설업체들의 난립 속에서 양사의 합병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분석했음.
車부품주 강세..50억弗 지원 개시	자동차 부품주도 강세를 나타냈음. 미국 재무부가 금융위기와 자동차 산업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에 50억달러의 자금 지원을 개시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되었음. 아메리칸 엑슬(AXL)이 6.4%, 비스테온(VSTN)이 23.3%, 테네코(TEN)가 12.3% 각각 올랐음. 이밖에 가정용품 유통업체 베드 베스 앤 비욘드(BBBY)가 월가 기대를 웃돈 실적에 힘입어 3.5% 상승했음.
유가 나흘만에 반등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적은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면서 국제 유가도 증시와 더불어 나흘만에 반등했음.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거래된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5월물 인도분 가격은 전일대비 배럴당 23센트(0.5%) 오른 49.38달러로 마쳤음. 지난주(3일 마감) 원유 재고는 전주대비 170만배럴 증가했고, 이는 에너지 정보 제공업체 플랫츠가 집계한 월가 전망치인 230만배럴에 못미치는 증가폭임.

제목	주요 내용
의사록 "美 경기하강 리스크 높다"	이날 연준이 공개한 3월 FOMC 의사록에 따르면 연준은 취약한 금융시장과 타이트한 신용여건, 치솟는 실업률과 소비지출 감소, 기업활동 둔화, 해외경제의 급격한 위축 등으로 미국 경제의 하강 리스크가 높다(predominant)고 진단했음.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이 올 하반기 정체 상태를 지속한 뒤 내년에 가서야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당분간 억제된 상태를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고, 일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바람직한 수준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며 디스인플레이션(disinflation) 또는 디플레이션(deflation)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음.
윤증현 "올 경제성장 추경 불구 -2% 내외"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의에 참석, "올해 경제 전망은 -2%에서 상향, 하향 전망이 모두 있다"며 "추경 효과는 2~3년에 걸쳐 나타난다. 현 시점에서 보면 성장 전망은 -2%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 그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관련, "북한 로켓 발사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는 거의 없었다"며 "오늘 내일 중(발행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정부, 외평채 30억달러 발행 성공	기획재정부는 9일(현지시간) "30억달러 규모의 달러 표시 외평채를 성공적으로 발행했다"고 밝혔음. 이번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과 15억달러와 10년 만기 달러표시 채권 15억달러로 구성됐다. 가산금리는 각각 미국 국채수익률(T) 대비 400bp, 437.5bp로 결정. 재정부는 "한국보다 신용등급이 2~3단계 높은 아부다비 정부 채권과 동일 수준의 금리로 발행됐다"며 "가격 조건과 투자자 배분 등이 합리적인 수준이었다"고 평가.
쌍용차 회생안 발표 "36% 감원·자산매각"	경영정상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지난해 기준 총 영업비용 가운데 12.5%를 차지하는 인건비 절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전체 인원의 36%에 해당하는 2,646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쌍용차 측은 "희망퇴직과 권고사직, 정리해고 등 여러 방법을 통해 올해 안에 가급적 빨리 인원감축을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음. 쌍용차는 인력감축으로 연간 2,320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예상된다고 밝혔음. 인력 감축에 따른 임금 절감액 1,360억원, 잔류 인력의 고통분담(인건비, 복지비 등) 960억원 등임.
달러 유로에 강세..'영국 침체 가속'	유럽지역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면서 달러화가 유로대비 강세. 영국의 싱크탱크인 국립경제사회연구소(NIESR)에 따르면 영국의 지난 1분기 경제성장률은 -1.5%를 기록. NIESR는 현재 영국의 경제침체가 1979년 마가렛 대처가 정권을 인수했을 당시와 비슷하다고 언급.
아일랜드, 유럽 최초 '배드뱅크' 설립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국가부도 사태까지 몰린 아일랜드는 이날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자산을 매입하는 전문기관 '배드뱅크'를 설립한다고 발표. 불량자산 매입 규모는 최대 800억~900억유로(1,080억~1,220억달러)로 부동산 가격침체로 회수여부가 불투명한 모기지 담보 증권 등이 주 매입 대상
日정부, 추가부양 위해 15조엔 규모 재정지출 계획	일본 정부와 연립 여당은 2009년 회계연도 추가예산을 통해 15조엔의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 총 56조엔 규모의 추가 경기부양안을 마련. 정부와 여당은 내일(10일) 중 추가부양안을 승인한 뒤 이르면 27일까지 의회에 제출할 것으로 예상.

<참고> 위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 뉴스를 정리한 것입니다.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